

## 안중근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 - 주체-타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황재문(서울대)

1. 서론
2. 자서전에서의 형상화 양상
3. 한국문학에서의 형상화 양상
  - 3.1. 1910년대의 문학
  - 3.2. 1920년대 이후의 몇 가지 사례
4. 외국문학에서의 형상화 양상
  - 4.1. 중국문학의 사례
  - 4.2. 일본문학의 사례
5. 안중근의 형상화와 주체-타자의 관계
6. 결론

## 1. 서론

1909년 10월 26일 安重根(1879~1910)이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을 저격 한 사건은 당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11월 4일까지 그에 관해 오고간 전보가 모두 9만여 통이었다는 기록은 그 충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sup>1)</sup>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국가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신문에서도 사건에 대한 보도는 이어졌다.<sup>2)</sup> 이를 통해 안중근의 생애와 공판 진행 상황, 사건의 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세계화교육연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1) 조광, 「安重根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1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182면.  
2)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는 ‘안중근 의거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 하에 특집논문 4편을 『한국

미와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3)</sup>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생애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문학으로 형상화되었다. 안중근 자신이 자서전을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그의 생애를 그려낸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창작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작품이 발표되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다양한 문학작품에서의 안중근 인식과 형상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안중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성과가 연구사를 정리하는 논문을 필요로 할 정도로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sup>4)</sup> 안중근을 다룬 문학작품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작품 간의 관련성 및 차별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는 논의의 결과를 ‘주체와 타자’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안중근 본인과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의 작가군 사이에서는 인식과 표현의 同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작가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중근을 다룬 문학작품을 본고에서 다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안중근을 작품의 중심 소재

근현대사연구』 2005년 여름호(33집)에 수록하였다. 이 논문들을 통해 당시 각종 언론의 반응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신운용,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내의 인식과 반응」; 윤선자, 「안중근 의거에 대한 천주교회의 인식」; 한상권, 「안중근 의거에 대한 미주 한인 인식: 『신한민보』를 중심으로」; 金春善,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3) 국내에서는 일본어 신문인 『京城日報』와 『朝鮮新聞』에서 호외로 사건을 보도하였고, 이후 여러 신문에서 관련된 기사를 실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안중근의 공판상황과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었고, 일본 측에서는 이를 한국내의 동향을 살피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7, 국사편찬위원회, 1978에 실린 자료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1910년 5월에는 滿洲日日新聞社에서는 공판 과정의 세세한 내용을 기록한 『安重根事件公判速記錄』(日文)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1946년 천주교 계통의 잡지사인 서울의 경향잡지에서 『安重根先生公判記』로 번역·간행되었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영인하였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안중근의사자료집』, 국학자료원, 1999.)

4) 조광, 앞의글. 조광은 2000년까지 안중근에 대해 47종의 전기 및 연구서, 60여편의 연구논문, 130여종의 아동용 위인전이 간행되었다고 했으며, 논문 말미에 해당 연구성과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로 삼아서 1910년대에 씌어진 작품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1920년대 이후의 작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중근’이라는 인물 자체가 갖는 정치적·사회적 상징성이 시대별·지역별로 변화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체와 타자’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중근의 이토 저격 사건은 경과와 결말이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당사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기도 하였고 신문들 역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 사건의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들 가운데는 이처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서술상의 오류를 범한 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세밀하게 다루지는 못한다. 이는 아직 안중근 연구에 미해결의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고가 인식 및 형상화의 양상과 그 원인을 해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며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자서전에서의 형상화 양상

안중근은 1909년 12월 13일부터 1910년 3월 15일까지 旅順 감옥에서 자신의 생애를 기술하였다. 한문으로 기록된 <安應七歷史>가 그것이다.<sup>6)</sup> 여기에는 출생에서부터 사형 선고 후 홍신부(한국명 洪錫九, Nicolas Joseph Marie Wilhelm)와의 면회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 서술순서

5) 한 예로 러시아 혹은 일본 내부의 반대파에 의해 이토가 살해되었다는 식의 음모론도 있다고 한다. 1909년 11월 13일의 『대한매일신보』 기사 등에 의하면 귀족원의원 무로다 요시부미는 ‘공작을 저격한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귀국 후에도 이를 계속 주장했다고 한다. 또 이러한 의혹은 公判 과정에서 일부 거론되기도 하였다.

6) 현재 <안응칠역사>의 원본은 전하지 않는다. 1979년 9월 발견된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七條清美’ 문서본이 원본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영인한 윤병석,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9을 활용한다. 이하에 거론되는 작품 가운데 『安重根傳記全集』에 수록된 것은 이 책에 의하여 인용면수를 밝힌다.

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두에는 자신의 출생과 조부, 부친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曾祖 이상의 가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조부 安仁壽는 진해현감을 지냈으며, 부친 安泰勳은 진사였다고 했다. 또 안태훈은 박영효에 의해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박영효가 역적으로 몰리면서 유학은 무산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서술된 것은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주한 이후의 일이다. 한문 교육, 조부의 죽음, 사냥에 심취한 것, 결혼 등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어서 부친 안태훈의 의병에 소속되어 元容日이 이끄는 東學黨과 싸워 이긴 일을 서술하였다. 안중근은 동학당을 ‘一進會의 本祖’라고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파악하였다.

동학당과의 싸움 이후의 서술은 천주교도로서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병 활동 과정에서 어윤중과 민영준의 곡식을 군량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게 된 안태훈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프랑스 사람의 천주교당에 숨어 지냈고, 그 이후에 일가가 모두 천주교에 入教하게 되었다고 했다. 안중근 또한 多默[도마: Thomas]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군중에게 포교하는 연설도 하였는데, <안응칠역사>에는 이 연설문을 수록하였다. 또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교인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운 일화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교회 측과 갈등을 겪은 일도 기록하고 있는데, 민주교(한국명 閔德孝, Gustave Charles Marie Mutel)에게 대학교 설립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일, 홍신부의 독단을 문제 삼다가 구타당한 일이 그것이다. 또 이 시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기를 용기로 극복한 일화도 기록되어 있는데, 천주교를 비방한 주씨와의 다툼, 萬人契의 사장으로 뽑혀서 겪은 위기, 중국인 의원 舒哥와의 다툼이 그것이다.

러일전쟁·을사조약 이후에는 중국으로 이주하여 반일운동을 펼칠 계획을 세운다. 중국 사정을 살펴려는 중국여행에서 관리였던 閔泳翼, 장사를 하는 徐相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조국을 위한 방책을 논하려 하였으나 실망만 하게 되고, 광신부[Le Gag]의 말을 듣고 해외 이주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귀국해 보니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에 평안도 진남포로 이주하였다고 했다. 이후 두 곳의 학교를 세워 학교 교육에 힘쓰고, 국제보상회의

활동에 참여한 일을 기록하였다.

안중근은 1907년 정미조약이 체결된 후 북간도로 향한다. 다시 煙秋[엔치아], 海蔘威[블라디보스토크]를 거치면서 동포들을 만나고, 李範允, 金斗星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다. 청년회에서 봉변을 당한 일, 이범윤에게 지금은 일본과 싸워야 할 때임을 설득한 일, 嚴仁燮, 金起龍과 의형제를 맺고 연설한 일 등을 당시의 일화로 기록하고 있다.

김두성·이범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안중근은 의병참모장으로 뽑혀 함경도로 진격했다고 서술했다. 처음에는 승리했지만 결국 패하게 되는데, 안중근은 戰功은 자세히 서술하지 않고, 두 가지 일화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일본 포로들을 석방한 일과 살아남은 몇 동료와 함께 탈출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탈출과정에서 안중근은 천주교도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 산속에서 入教을 희망하는 두 사람에게 代洗를 준 일이 그것이다.

러시아 영토로 되돌아온 안중근은, 의병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재개한다. 一進會 잔당들에게 붙잡혀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斷指同盟」을 맺어 12인의 동지가 대한독립을 위해 합심하기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안중근은 엔치아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이 때 떠난 이유를 밝히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듯한데, 자서전에서는 그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만 서술했다.<sup>7)</sup>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하는 거사를 준비한다. 심문 과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인지 혹은 밝히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의 서술은 그리 상세한 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의병장 李錫山으로부터 돈을 뺏어 경비를 마련한 일, 하얼빈으로 이동하며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을 만난 일, 노래(丈夫歌)를 읊은 일, 이토의 행적을 탐문하고 蔡家溝[지아이시스고]가 南清鐵道의 교차역임을 확인한 일, 저격에

성공하고 만세를 부른 일 등 주요사항은 간추려 기록했다. <안응칠역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심문과 공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간수·검사 등 일본 관리들과의 접촉, 홍신부와와의 면회가 서술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안응칠역사>에는 안중근의 생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숨길 만하거나 다소 무모하다고 보이는 일화도 포함되어 있어 서술 태도는 솔직한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그 결과 형상화된 안중근 자신의 모습은 천주교도, 애국계몽운동가, 의병장 등으로 지적될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천주교도로서의 면모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은 <안응칠역사>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서술의 분량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니와 천도교 입교와 포교 과정 등이 다른 일화들에 비해 자세히 서술되었다는 서술의 밀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의병으로 활동하다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하늘에 기도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동료들에게 설교하고 代洗를 주는 일화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마지막 장면을 홍신부와와의 면회와 신부의 降福으로 맺은 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천주교도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는 <안응칠역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면모, 즉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병활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 상세하지 않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일본인의 악행과 관련된 일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심문과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기술했던 것인 까닭에 함께 활동한 동지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일 것이다.<sup>9)</sup> 이와 함께 이미 심문 과정에서 말

7) <안응칠역사>, 『안중근전기전집』, 115면. “하루는 홀연 까닭 없이 마음이 울적하여 초조함을 이길 수 없고 스스로 진정할 수가 없었다. 이에 몇 사람에게 ‘나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벗이 ‘무슨 까닭에 이처럼 기약도 없이 갑자기 가는가’ 하고 물었다. 나는 ‘나 또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자연 마음에 번뇌가 생겨 도무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뜻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떠나고자 한다’고 답하였다.(一日忽然無故而心神憤鬱, 不勝操悶, 自難鎮定. 乃謂親友數人曰, 我今欲往海蔘威. 其人曰, 何故如是無期率往乎. 我答曰, 我亦莫知其故也. 自然腦心煩惱, 都無留此之意. 故欲去.)”

8) 기생방에서 입바를 소리들 하다가 욱하거나 때리는 등의 일로 해서 電口[번개입]라 불린 일화, 노루사냥에서 불발탄을 꺼내려다 다친 사건, 천주교를 비방하는 주씨와 다투다가 단도로 위협하여 탈출한 사건이 그러한 예에 포함될 것이다.

9)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8, 109면에서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생존동지들의 신변을 위하여 가능한 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거나 아예 생략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특히 국내 6진지역 의병활동 대목에서의 우덕순에 대한 것, 1909년 3월의 同義斷指會에 대한 언

한 것을 다시 상세하게 서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안응칠역사>에 한정해서 본다면 이토 한 사람의 잘못을 거듭 지적할 뿐 일본에 대한 불만이나 원한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본인 가운데는 안중근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에게 감화된 듯한 사람도 있었다는 서술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해당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읽어본다면, 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 자체가 안중근에게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로부터 감옥에 있는 이후 나날이 점차 서로 가까워지는 중에 典獄과 警守係長 그리고 그 아래의 일반관리들이 특별히 후대하여 나는 감동을 이길 수 없었다. 혹 마음 속에 스스로 생각하건대 의아스러웠다. “이것이 참인가? 꿈인가? 같은 일본의 사람인데 어찌 이처럼 크게 다른 것인가?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은 어찌 그리 사납고 악함이 심하며, 旅順口에 와서 사는 일본인은 무슨 까닭에 이처럼 인후하단 말인가? 한국과 旅順口의 일본인의 종류가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풍토와 기후가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한국의 일본인은 권력을 가진 이토가 극악한 까닭에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旅順口의 일본인은 권력을 가진 都督이 인자한 까닭에 그 덕의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유를 깨달을 수 없었다.<sup>10)</sup>

안중근이 旅順의 감옥에서 받은 인상을 기술한 부분이다. 旅順 감옥의 안중근에 대한 대우가 특별한 것이었기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만,<sup>11)</sup> 안중근은 감옥의 관리들이 한국에서 접했던 일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단지동맹의 경우 <안응칠역사>에서는 그 존재만 언급했을 뿐 가담자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10) <안응칠역사>, 『안중근전기전집』, 122-123면. “自此在監以後, 日日漸次相近中, 典獄·警守係長, 與其次一般官吏, 特別厚待, 我不勝感動. 或心中自思疑訝曰, 此眞耶夢耶. 同一日本之人, 何如是大不相同耶. 韓國來往日人, 何其強惡太甚, 旅順口來往日人, 何故如是仁厚耶. 韓國與旅順口, 日人之種類不同然耶, 水土風氣不同以然耶. 韓國日人, 主權者伊藤極惡, 故效其心以然耶. 旅順口日人主權都督仁慈, 故和其德以然耶. 左思右想, 理由未覺也.”

종류로 여겨질 만큼 인후하다고 하였다.<sup>12)</sup> 이 진술은 실상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뜻밖의 후대를 받았다는 것이 그 하나라면, 한국에서 일본인들의 극악한 행위들을 수없이 경험했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후자에 주목할 경우 안중근은 일본인이 저지른 악행을 누차 경험한 바 있으며 따라서 일본인에 대해서 원래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안응칠역사>에는 ‘일본인의 악행’이나 ‘일본인과의 충돌’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인의 방해로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짙막하게 사실만 지적한 것을 제외하면,<sup>13)</sup> 國債報償會에서 일본 순사와 다툰 일화 정도만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sup>14)</sup> 이 일화의 경우에도 민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어서 ‘사납고 악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요컨대 <안응칠역사>는 솔직한 자기생애에 대한 서술이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누락시키거나 발언을 자제한 서술 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토 한 사람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일본과 일본인의 악행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는 의도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11)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3일. “지금까지 여순감옥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대우는 청국인과 같은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하여 두세 번 옥중에서 운동을 허락하고 있으며 심문하거나 폭력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를 말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12) 안중근이 旅順의 일본인이 종류가 다르다고 느낀 데 대해서는 일본 내부의 권력 및 사회구조와 관련시켜 해석한 예도 있다. 즉 감옥의 관리들이 長州[조슈] 출신인 이토와는 다른 지역 혹은 적대적인 지역 출신이거나 혹은 이토와는 정치적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특별히 이토를 저격한 안중근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중근을 달리 대우한 전적인 이유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3) <안응칠역사>, 『안중근전기전집』, 99면. “이 때 나는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평양에 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는데, 일본인의 방해로 수천원의 돈을 손해 보았다(此時, 我欲辦財政之計, 往于平壤, 開採石炭礦矣. 因日人之沮礙, 見害數千元好銀耳).”

14) <안응칠역사>, 『안중근전기전집』, 99~100면.

### 3. 한국문학에서의 형상화 양상

#### 3.1. 1910년대의 문학

한국인에 의해 씌어진 안중근 소개 문학은, 적어도 1910년대에는 전기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듯하다. 이는 안중근의 거사를 널리 알리고 본받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15)</sup> 또 현전하는 작품의 대부분이 외국, 즉 망명지에서 씌어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해 둘 만하네,<sup>16)</sup> 이는 사건 자체에 대한 정보와 문학 및 언론 활동의 자유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전하는 안중근의 전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씌어진 것은, 1910년 4월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近世歷史>이다.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고 日警에 의해 번역된 日譯本만이 남아 있다.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 소장된 「不逞사건을 통해 본 조선인의 側面觀」이라는 보고문서 속에 실려 있으며, 한국 내에서 유포·애독되던 것을 압수하여 일어로 번역한 것이다.<sup>17)</sup> 국내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예에 속한데 하겠는데, 작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sup>18)</sup>

세부적인 서술을 살펴보면 사실 관95계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며,<sup>19)</sup> 일부 과장된 듯한 서술도 나타난다.<sup>20)</sup> 그렇지만 사건 직후에 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비교적 많은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채보상운동 참여와 일본 순사와의 충돌, 1907년의 송별회 장면, 일본 포로를 석방한 일 등은 여타의 전기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일화이다. 안중근과 가까운 인물이 저자이거나 혹은 그런 인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작품의 바탕을 이루었을 것임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세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천주교도로서의 안중근’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안중근이 17세에 천주교에 입교해서는 어려움에 처하면 천주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분개하였고, 부친의 상을 치른 이후에는 천주께 기도를 올렸다고 했다. 또 의병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땅에 쓰러진 안중근을 어루만지고 깨우쳤다고 했다. 旅順의 감옥에서는 ‘靈性이 높아서’ 음식과 잠자리를 평소와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중대사항을 법원에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주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 죽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sup>21)</sup> 이런 부분들을 종합한다면, 자서전인 <안응칠역사> 이상으로 천주교도로서의 면모를 강조한 것이 <근세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11년 8월에 洪焉(1880~1951, 初名은 宗杓)이 하와이 新韓國報社에서 간행한 <大東偉人安重根傳>은 원문이 온전히 전하는 국문본이다. 홍언은 원래 하와이에 노동이민으로 건너갔지만, 이후 신문사 일에 관여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대동위인안중근전>은 다른 전기류에서는 볼 수 없는 외국 언론의 반응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뉴욕 썬 신문, 시카고 이브닝포스트, 자유보(하와이) 등이 직접 거론되어 있고, 영국·미국·일본 등의 반응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반면 <대동위인안중근전>에는 안중근의 일생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술

15) 한편 시가의 경우 漢詩의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우리말노래가 드문 것은 자료 발굴과 관련된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간행된 자료가 많기 때문인 듯하다. 1914년에 간행된 『安重根』의 말미에는 중국에서 열린 追悼會에서 읊은 한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말노래는 활자가 없어 수록하지 못한다고 했다. (『追悼會附錄』, 『안중근전기전집』, 260면.)

16) 안중근을 소재로 한 漢詩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金澤榮의 <開義義將安重根報國讎事> 같은 작품도 중국에서 씌어진 것이다. 국내에서 쓴 漢詩로는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金福漢(1860~1924)의 <開安重根事有感> 정도가 남아 있다. 김복한의 시에 대해서는 閔丙秀, 「開化期の 憂國漢詩」, 『開化期の 憂國文學』, 신구문화사, 1974, 49면 참조.

17)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113면.

18) 신운용,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내의 인식과 반응」, 25~26면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와 작품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프랑스 출신 安世華 신부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세력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19)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114면에서는 단지동맹의 시기가 잘못 기술되었음을 지적했다.

20) 3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회령에서 유인·매복 작전을 성공시켜 수백명을 죽이는 등 일본군의 死傷者가 천여명에 달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뒤에 살펴볼 박은식의 저작 등에서는 안중근의 의병이 경흥에서 적 50여명을 죽였으나 회령에서는 패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21) 아래에서 다룰 <대동위인안중근전>에서도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박히던 날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안중근이 특별히 그 날을 자신의 죽는 날로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안중근의 권고에 따라 부친 안태훈이 천주교에 입교하였고, 안태훈이 전일 怨嫌이 있던 관리에 의해 獄死했다고 서술하였다. 또 을사조약 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군사는 ‘배로 싸우는 것’이라 하여 석탄 무역에 나섰다가 실패하고<sup>22)</sup> 다시 군사를 일으켜 왜구를 토벌하고자 했다고 서술했다. 또 동해가로부터 호걸을 거두어 회령·중성으로 나아갔다고 했으니, 국내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였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만 이는 을사조약 후 중국으로 건너갔고 정미조약 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의병을 일으켜 함경도의 일본군을 공격한 안중근의 실제 생애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는 적어도 안중근의 모습을 일관되게 형상화하는 데는 도움이 된 듯하다. 홍언은 안중근을 ‘장군’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안중근을 ‘장군’ 즉 영웅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이런 오류들이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를 이끌고 천주교에 입교하는 것은, 예수가 자신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영웅다운 행동의 예가 될 수 있다. 부친의 죽음을 관리의 원함과 관련시킨 것은, 강한 적대자로 인해 영웅이 위기를 겪게 된다는 전형적인 ‘영웅의 일생’을 도입한 셈이 된다.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의병을 국내에서 일으켰다고 서술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장수로서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 예가 될 수 있다.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대동위인안중근전>의 안중근은 ‘장군’으로 그려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군략에 뜻을 두고 弓馬를 좋아하여 장수로서의 덕을 키웠으며, 석탄무역에 실패하고 돌아와서는 “肥肉을 어로만지며”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포들을 교육하고 실업을 장려한 일을 지적하여 “안공의 렉스 중에 가장 참담한 실의”라고 풀이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 ‘안중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목표라는 전제 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장군으로 하여금 수레를 밀치는 명을 받아 일즉이 병권을 장악하였더

22) 석탄채굴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점은 자서전인 <안중근일화>에도 기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동위인안중근전>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그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면 살수의 대전과 로량의 승첩이 업스리라고 단언치 못할 것이어늘 조정에 관적이 충척하야 장지를 시그흠에 장군이 포의로 반세를 감가흔지라...만고동양의 범갓흔 장군이 부득이 협스의 즈최를 뵈음이 었지 장군의 처음 뜻이리오 임의 나라에 허락흔 몸이 다시 으너즈의 손에서 죽기를 원치 아니하야 철알히 적괴를 배히고 궤열흔 의뵈을 난호아 국민의 노슈에 치우리라 흠이니 장군의 당일고심이 그 었더흐엿스리오. 가히 후인으로 하여금 통곡할 일이다.<sup>23)</sup>

인용문은 국내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다시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인 일에 대해 서술한 대목이다. 을지문덕이나 이순신과 같은 將材를 지녔음에도 조정에서 장수로 쓰지 않은 때문에 그들과 같은 공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했다. 떳떳한 장군이어야 할 안중근이 俠士가 된 것은 당시 조정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군으로서의 안중근’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홍언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홍언은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제 인물인 안중근에 대해 어느 정도 과장과 허구화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정보의 한계 때문인지 혹은 의도적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박은식이 ‘滄海老紡室’이라는 필명으로 쓴 한문본 <安重根傳>은 안중근을 다룬 전기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sup>24)</sup> 1912년경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1914년 上海大同編輯局에서 ‘安重根’이라는 제목으로 章炳麟 등의 글을 합쳐 간행한 것이 전한다. 緒言과 28장의 본문, 그리고 結論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5)</sup> 일부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

23) <대동위인안중근전>, 『안중근전기전집』, 473면.

24) 1920년 『독립신문』에서는 이 작품을 국한문으로 문체를 고쳐 수록하였는데, 그 가운데 앞부분 일부만이 현재 남아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문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박은식의 <안중근전>에 대한 연구가 이 국한문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편, 『朴殷植全書』, 단국대학교출판부, 1975에 영인·수록되어 있다. 뒤에서 언급할 김택영의 <安重根傳>과 玉史의 <만고의사안중근전>은 모두 박은식의 한문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고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중국인들에게도 널리 읽힌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5) 장별 제목은 다음과 같다. 緒言/ 第一章 重根之出世/ 第二章 重根之幼年破賊/ 第三章 重根之尙武主義/ 第四章 重根之義俠/ 第五章 日本經營韓國 及伊藤勒締保護條約之概況/ 第六章 重根之奔走國事/ 第七章 伊藤逼韓皇禪位勒締七條協約/ 第八章 重根之去國/ 第九章 重根之勉勵國民團合/ 第十章 重根之學義/ 第十一章 伊藤廢陸軍部奪司法權/ 第十二章 伊藤視察滿

만,26) 자서전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한 자료를 모아서 서술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은 <안중근전>에서 안중근의 행적만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정세, 특히 일본의 침략 정책을 병행해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안중근의 동료인 우덕순(26장), 寺內正毅를 암살하려 한 안중근의 사촌 安明根(27장), 이완용·이용구를 죽이고자 하다가 실패한 李在明·金貞益(28장)의 행적을 말미에 붙였다.27) 안중근 한 사람의 영웅적인 투쟁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 및 일본인의 惡行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는 자서전인 <안응칠역사>의 방향과는 대조적인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박은식은 <안응칠역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일본인 관련 일화도 제시하고 있다. 서울에서 한국인의 말을 빼앗아가려는 일본인을 발견하고 총을 겨누어 저지시킨 일(4장), 학교 설립 이후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은 일(6장), 군대해산으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안창호 등과 함께 부상자를 구호한 일(7장), 일본의 기자와 사진사 등이 왜곡된 기사와 사진으로 안중근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일(24장)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박은식은 이처럼 일본의 악행과 침략정책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그와 대비되는 안중근의 영웅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緒言에서 ‘평화의

대표’를 자임한 인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단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원수를 갚은 志士나 烈俠으로 서술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한 것이 그 핵심이다.28) 이는 이토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인물이라는 인식에서 도출된다.29)

그렇지만 이토 저격이라는 행위 하나만을 고려한다면 안중근에 대해 志士나 烈俠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박은식은 감옥에서의 생활과 재판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의심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중근의 생애에서 극히 일부라 할 수 있는 감옥생활과 재판과정에, 박은식은 전체 분량의 절반 가량을 할애하고 있다. 박은식은 ‘저격 후에 大呼하고, 체포될 때 大笑한 것’이 저격 자체보다 안중근이 위인이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했고, 안중근이 “人心惟危 道心惟微”로 自省하면서 감옥에서 평온하게 지냈다고 했다. 또 私嫌이나 오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하라는 일본의 끈질긴 유혹과 요구를 물리쳤다고 했다. 이러한 서술은 모두 志士나 烈俠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안중근의 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30)

玉史라는 필명 하에 간행된 국문본 <만고의사안중근전>은, 브라디보스토크의 韓人新報社에서 1917년에 간행한 『愛國魂』(石印本)에 수록된 것이다. 玉史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인신보사의 주필이었던 金河球로 추정된다.31) 책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32) 박은식의 <안중

洲/ 第十三章 重根之活動/ 第十四章 重根之狙擊伊藤/ 第十五章 家族及志士之遭禍/ 第十六章 日人之對付與重根之態度/ 第十七章 日人之巧誘/ 第十八章 二弟之面會/ 第十九章 韓國律師之嘔血/ 第二十章 日人之欲梟韓皇/ 第二十一章 滯獄時之從容/ 第二十二章 公判時之狀況/ 第二十三章 各國律師之態度/ 第二十四章 重根之最終/ 第二十五章 二弟之痛罵日人/ 第二十六章 禹德淳之歷史大概/ 第二十七章 重根之從弟明根/ 第二十八章 李在明金貞益/ 結論.

26) 특히 우덕순과 관련된 부분의 서술에서는 잘못된 곳이 여럿 보인다. 寬城子 즉 長春에서 이토를 기다렸다는 부분, 3년형을 받은 우덕순이 함흥의 감옥에서 자살 혹은 도주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또 단지동맹의 시기와 참가자에 대한 서술에서도 잘못이 보인다. 실제 우덕순은 단지동맹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는 당시 잘못된 정보가 알려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7) 이러한 서술 방식은 박은식이 <渤海太祖建國誌>, <明臨答夫傳>, <泉蓋蘇文傳> 등을 주변 인물의 일화, 저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變體로 서술한 데서 이미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황재문, 「시간도 망명기 박은식 저작의 성격과 서술 방식」, 『진단학보』 98호, 진단학회, 2004, 164-171면 참조.

28) <안중근전>, 『안중근전기전집』, 229면. “대개 안중근의 역사를 들어서 논하면서 ‘자기 몸을 버려서 나라를 구한 志士’라거나 ‘한국을 위하여 원수를 갚은 烈俠’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안중근의 역사를 제대로 다 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중근은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추고 평화의 대표를 자임한 인물이다.(夫據安重根歷史而論之, 亦曰死身救國之志士而已, 爲韓報仇之烈俠而已. 余以爲未足以盡重根也. 重根具世界之眼光而自任平和之代表者也.)”

29) 박은식은 안중근이 우덕순을 만나 거사를 함께 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는 다만 우리의 하늘을 같이할 수 없는 원수일 뿐 아니라 세계 인도의 큰 도적이다.(是不特我人之不共戴天之仇, 卽世界人道之大賊.)”고 지적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안중근의 말이지만, 또한 박은식의 인식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0) 그렇지만 박은식이 志士나 烈俠을 넘어서는 안중근의 영웅성을 ‘평화의 대표’로 구체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동양평화를 위해 죽으니 恨 될 것이 없다’는 등의 안중근의 진술에 근거한 서술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박은식의 사상과 학문, 당대의 사회 사상과 관련해서 해명할 때 보다 정확한 의미와 의의가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31) 윤병석, 「해제」, 『안중근전기전집』, 41면.

32) <愛國魂>, 『안중근전기전집』, 363면. “남의 편술한 것을 그 더로 옮긴 것이니… 안중근전

근전>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되었지만,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의론이나 시대상황, 다른 인물들의 사적에 대한 서술 부분을 제외하는 등 박은식의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반면, 일부 오류는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다.<sup>33)</sup>

이처럼 편차를 새롭게 함으로써 <만고의사안중근전>은 안중근 개인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는 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평화의 대표로 자임한 안중근’의 모습은 약화되는 반면 민족을 위해 원수를 제거한 영웅 안중근의 상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志士나 烈俠의 관점에서 안중근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안중근의 여타 지사·열협과의 차별성은 원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고 ‘우리’를 위해 거사했다는 점 정도로만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愛國魂』의 서두에 실린 국문시가 <안의사추도가>에서도 攝政과 荊軻를 거론하고 안중근을 忠魂으로 지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고의사안중근전>에서 그려진 안중근은 예수와 비견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sup>34)</sup> 이러한 비유는 玉史가 기독교와 관련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sup>35)</sup> 그렇지만 기독교 혹은 천주교와 관련된 언급은 <근세역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중근을 예수와 비견한 것은, 예수의 사상과 안중근의 사상을 대응시킨 것이라기보다는 예수와 같은 최상급의 영웅성을 안중근에게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우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金澤榮(1850~1927)이 1916년에 쓴 <安重根傳>은 전통적인 傳 양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 1910년에 안중근의 傳을 지었지만, 박은식의 글을 보고

은 검곡선상의 편술한 전지에서 간단하게 추리고 그타는 렉스와 신문에서 모흔 것이오.”

33) <만고의사안중근전>에는 박은식의 <안중근전> 중 緒言·結論 및 3장 일부, 5장, 7장 전반부, 9장, 11장, 12장 일부, 26, 27, 28장이 누락되어 있다. 한편 寬城子가 아닌 蔡家溝에서 우덕순 등이 머물렀다는 점, 안중근의 이토 죄목이 13개조가 아닌 15개조라는 점 등이 바로잡은 예에 해당된다.

34) 안중근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골고다에서 예수씨가 십자가에 못박힘과 같이 되니”(394-395면)라고 서술한 데서 그 직접적인 표현을 찾을 수 있다.

35) ‘玉史’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기독교계 내부의 사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독교계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고의사안중근전>, 『안중근 전기전집』, 373면. “의사는 서울서 떠나 먼저 북간도에 당도하여 사회와 교육을 만이 권면하고 비밀사상을 크게 고동하여 심지 튼주교 목사는 의사를 멀리 흐라고 그 교인들에게 신칙한 일이 있었더라.”

잘못을 바로잡아 고쳐 쓴 것이다.<sup>36)</sup> 서두를 “韓義兵將安重根”이라고 시작함으로써 인물의 위상을 제시했고, 말미에는 별도의 論贊을 붙여 인물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論贊에서는 海州의 지세와 안중근의 영웅성의 관계를 논하고, 이어서 다른 忠臣·烈士와는 달리 뜻한 바를 이루고 죽었고 옥중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박은식이 거부하고자 했던 志士·烈俠의 인물로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다만 과거의 志士·烈俠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택영이 박은식의 글을 참고하였다고 했으므로, 김택영이 ‘평화의 대표’라는 인물 평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택영은 안중근에 대한 서술에서 천주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박은식이 몇 곳에서 천주교와의 관련성을 지적한 것과 대비된다. 정확성을 추구하는 史家로서의 면모를 지닌 김택영이고 보면,<sup>37)</sup> 천주교에 대해 서술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傳이 인물의 생애 전체를 서술하기보다는 특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문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택영이 안중근의 업적과 천주교도라는 사실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이해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평화의 대표’나 ‘천주교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김택영은 안중근을 어떤 인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는가? 전통적인 志士·烈俠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김택영은 안중근에게 ‘중국과의 연대’를 실천하고자 한 인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도 짐작된다. 김택영은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중국과의 연대’에 주목한 인물이었는데,<sup>38)</sup> 안중근 또한 중국을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인

36) <安重根傳>, 『안중근전기전집』, 444면. “처음 경술년(1910)에 『滬報』에 의거하여 이전을 지었다. 그런데 근래 안열사의 벗인 박은식이 기록한 것 한 편을 구하여 살펴보니, 잘못된 곳이 매우 많았다. 그런 까닭에 고쳐서 짓는다(始庚戌據滬報作是傳. 近得安烈士友朴殷植所記一編考之, 則失實甚多矣. 故茲改作.)”

37) 김택영은 역사 서술에 있어 정확성을 추구했던 인물이다. 자신의 선대에 商業에 종사한 사실을 밝히려 한 사례가 있듯이, 안중근의 선대를 거론하면서는 “世爲州吏”라고 지적했다.

38) 김택영이 1920년에 쓴 <擬陳情書>는 중국총리대신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씌어진 글이다.



물로 설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905년 안중근이 중국으로 떠난 목적이 <안응칠역사>에서는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김택영은 ‘함께 일을 도모할 만한 중국인들과 結交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 것이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듯하다.<sup>39)</sup> 또한 이러한 김택영의 시각은 <聞義兵將安重根報國讎事>이나 <擬祭文>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傳 양식을 취한 것으로는 李建昇(1858~1924)의 <安重根傳>도 있다. 정확한 창작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진승이 만주 회인현에 정착한 1910년 12월 이후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망명지에서의 작품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택영의 <안중근전>과 문체와 표현방법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된 바 있듯이,<sup>40)</sup>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김택영의 글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렇지만 천주교에 대한 언급, 중국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서는 두 작품 사이에 차이가 보이며, 따라서 형상화된 안중근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진승은 안중근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교하게 된 부친의 뒤를 따라 천주교인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또 1905년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往渡中國”이라고만 서술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었기에 국외로 나갔다는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려운 표현이며, 김택영의 경우와 같은 ‘중국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繼而有李在明安明根之事”로 글을 끝맺어서 義俠의 전통에 따라 안중근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김택영은 중국에 머물면서 특히 신해혁명 이후에는 중국인들과의 연대의식을 표출한 시를 여럿 남겼다. <曹公亭歌 爲費純九作> 같은 작품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재문, 「金澤榮 詩에 나타난 遺民意識」, 『한국한시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참조.

39) <안중근전>, 『안중근전기전집』, 444면. “중근이 아버지께 고하였다. ‘전일 우리 나라가 러시아가 후원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본이 이미 러시아를 이겼으니, 무슨 꺼릴 바 있어 우리를 썩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노닐어 더불어 유지를 도모할 만한 뛰어난 인물들과 교분을 맺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重根告父曰, 前日我國恃俄羅斯爲援, 今也日本既克俄羅斯, 則何所憚而不咋我. 然則我之可與爲唇齒者中國而已. 往遊中國結交才俊與圖維持, 兒之願也.)”

40)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116면.

로 보이는데, 다만 박은식이나 김택영처럼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서술하지는 않았다.

1914년 6월에서 8월까지 ‘檀生’이라는 筆名으로 『勸業新聞』에 연재된 <만고의스안중근전>은, 桂奉瑒(1880~1959)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계봉우는 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勸業新聞』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계봉우는 안중근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913년 8월에는 안중근의 동생 安定根으로부터 안중근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고, 1914년에는 姜宇奎를 찾아 그가 모은 안중근의 사적을 살펴보기도 하였다.<sup>41)</sup> 이 때문에 여타의 전기류에서는 찾기 어려운 일화도 일부 언급하고 있다.<sup>42)</sup>

<만고의스안중근전>은 뒷부분 일부가 남아 있지 않은데, 현전하는 부분만으로도 대략의 내용은 짐작할 수 있다. 현재는 서론과 11장까지가 남아 있다. 각 장의 제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제1장 과거에 무슈훈 안중근
- 제2장 안중근의 탄성과 그 세계
- 제3장 큰 상무가(尙武家)의 안중근
- 제4장 대중교가의 안중근
- 제5장 대교육가의 안중근
- 제6장 대시가(大詩家)의 안중근
- 제7장 대여행가(大旅行家)의 안중근
- 제8장 스군이충(事君以忠)의 안중근
- 제9장 스친이효(事親以孝)의 안중근
- 제10장 교우이신(交友以信)의 안중근
- 제11장 립전무퇴(臨戰無退)의 안중근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시간순이 아닌 주제별로 나누어 생애를 서술한 점

41)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121~123면.

42) 간도에서 신부의 명령으로 천주교인들이 호응하지 않은 일, 保安會를 찾은 일, 淸人 舒哥와의 다툼, 단지동맹의 구체적 내용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 우선 드러나는 특징이다.<sup>43)</sup> 또 尙武家, 종교가, 교육가, 시인, 여행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世俗五戒와 같은 전통적인 덕목에 충실했던 인물로 묘사하려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안중근에 대한 일화를 통해 그와 같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필명을 檀生이라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본문의 서술이 대종교의 역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계봉우는 漢文學 유입 이래 支那 인물에게 머리 숙이는 버릇이 만연했지만 이제는 안중근이라는 민족의 영웅을 얻어 누구나 노래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론을 서술했으며, 안중근을 단군, 사다함, 김유신, 죽죽, 온달 등의 인물과 견주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계봉우는 안중근의 행적과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실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계봉우는, 지구상의 제왕장상과 영웅호걸이 모두 예수교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서 정신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런 영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안중근은 예수교의 덕목을 모두 몸소 실천한 인물이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었으며, 또 한 그 모범이 우리 역사의 위인들과 일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계봉우가 형상화하고자 한 안중근의 면모는, 예수를 믿되 정신없이 순종하지만은 않아서 전통적인 덕목을 지키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1920년대 이후의 몇 가지 사례

1920년대 이후 창작된 한국인 저작 안중근 소재 문학에서는 전기류나 한시 이외의 작품들도 발견된다. 이 가운데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의 생애를 윤색하여 어느 정도 허구화시킨 예도 보인다. 모든 작품을 거론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살펴볼 만한 사례로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를 들 수 있다. 1928년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벌일 당시에 공연하였고 뒤에 림종상 등이 각색했다고 북한에서 밝히고 있는 이 작품은, 1979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1998년에는 국내 방송에서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 소설에서는<sup>44)</sup> 당시 한국을 둘러싼 주요사건들이 안중근을 중심으로 재배치된다는 점을 구성상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민영환의 자결, 장지연의 체포, 한규설의 조약 거부 실패, 이준의 헤이그행과 같은 사건을 안중근이 직접 목격하거나 해당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가공인물을 안중근 주위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고주호, 김명국, 최순영, 성군, 오경석 같은 인물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이밖에 실제 인물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른 서술을 일부 하고 있다. 안중근 사건의 검사였던 미조부찌를 중근이 석방했던 일본군 장교로 설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안중근이 당대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 소설은 한국 역사, 특히 항일운동사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안중근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발전하는 인물로 설정된다.

주인공 ‘안중근’의 생애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생애 자체를 크게 바꿔 놓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그렇지만 소설을 통해 형상화된 ‘안중근’의 모습은 <안응칠역사>나 1910년대 전기류의 그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우선 천주교와의 관계 설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고, 안중근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발전하는 인물로 묘사된 점이 다르다. 홍신부와 대면한 안중근이 ‘조선 천주교회의 괴수 민주교’ 식으로 발언한 것은, 천주교도로서의 생애를 중시한 <안응칠역사>와는 상반된 것이라 할 만하다. 또 박은식을 비롯한 이들의 안중근 전기에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진 영웅이었던 안중근은, 이 소설에서는 스스로 체험하면서 한계를 깨닫고 발전해가는 인물로 묘사된다.

43) 계봉우는 이와는 별도의 <안중근전>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123-124면) 본편의 서술이 주제별로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44) 희곡으로 창작되어 상연되고 이후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국내에서는 소설 형태로 간행되었고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소설’로 지칭한다. 림종상 각색,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자음과모음, 2006.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이토에 대한 묘사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토를 악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1910년대 전 기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처럼 조선병함에만 몰두한 철두철미한 악한으로 묘사하여 “이 은둔국을 단숨에 먹지 못해 안달이 난 늙은이”<sup>45)</sup>나 “주·색·연에 절은 광신자”<sup>46)</sup>와 같이 서술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결과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선악 대립구도는, 다소 과장되게 혹은 극단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국권 회복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안중근 소재 문학의 상당수는 위인전기류로 분류될 만한 것들이다. 또한 전문서적보다는 어린이 위인전류를 중심으로 한 교양서적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안중근의 생애를 정확하게 밝히고 역사적 교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들 간의 개별적인 차이, 특히 ‘역사적 교훈’의 내용과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여기서 그것을 다 다루지는 못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학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가 나타나 하나의 경향을 이루고 있다. 안중근을 둘러싼 한국 역사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안중근의 거사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근본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되묻는 예가 그것이다. 이른바 대체역사, 즉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지 못했더라면?’이라는 가정법 하에서 당대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회의적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개인과 역사적 영웅의 거리를 재검토하는 작품도 있다. 복거일의 소설 <碑銘을 찾아서>(1987), 김연수의 소설 <이등박문을, 쏘지 못하다>(2005)와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2002)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sup>47)</sup> 이들 작품에 대해 본고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안중근에 관한 사실을 밝히려는 단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45) 림종상 각색,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126면.

46) 위의 책, 449면.

47)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와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관계와 차이점에 대해서는 김명석, 『SF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와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서사 비교』, 『문학과 영상』 4집, 문학과영상학회, 2003 참조.

물론 오늘날에 안중근에 관한 사실을 독자(관중)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작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안중근’을 다룬 최근의 영화 가운데도 그러한 예가 보인다.<sup>48)</sup> 예를 들면 영화 <도마 안중근>(2004)은 자막을 통해 영화 제작에 참고한 꽤 많은 역사연구서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역사학계의 연구성과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혹은 연구서 상호간의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지는 논외로 한다면, 그러한 의도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자체의 주제의식이나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의 적절성 문제를 떠나서 볼 때,<sup>49)</sup> 오늘날의 문학에서도 안중근에 대한 태도가 1910년대 전기류의 맥락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4. 외국문학에서의 안중근 형상화 양상

##### 4.1. 중국문학의 사례

안중근은 한국인에게뿐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큰 충격과 감명을 준 인물이었다. 그 결과 안중근을 소재로 한 문학은 중국인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창작되었다.<sup>50)</sup> 앞서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중국에서 여러 문사들의 詩文

48) 안중근을 다룬 영화는 여러 편이 제작된 바 있다. 상해파 한국 영화인들에 의해 제작된 <愛國魂>(1928년; 鄭起鐸 감독)을 시작으로 하여 <安重根史記>(1946년; 이구영 감독),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1959년; 전창근 감독), <의사 안중근>(1972년; 주동진 감독) 등이 제작·상영되었다. 신광철, 『안중근을 보는 두 가지 시선: 남북한 영화가 재현해 낸 애국적 인물의 궤적』, 『인문콘텐츠』 제1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227-230면.

49) <도마 안중근>은 제목에서 세례명을 내세운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천주교도로서의 면모를 강조한 작품이다. 기도하는 안중근의 모습이 수시로 나타날 뿐 아니라, 탄환에 십자 표시를 하는 것을 종교적인 의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데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탄환의 십자 표시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도로서의 안중근을 조명하는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과 천주교 신앙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장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2년작인 <의사 안중근>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을 사용하고 있다. 신광철, 앞의 글, 233면 참조). 한편 사격의 달인이라는 측면도 영화에서는 강조되고 있는데, 총격전 등의 장면은 역사적 상황에 맞지 않거나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50) 중국에서는 신해혁명과 5·4운동에서 안중근을 반일투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형상화한 연극이 상당수 공연되었다. 또한 안중근을 소재로 한 시와 노래 등도 다수 창작되었다. 이에 대

과 합쳐져서 1914년에 『安重根』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1920년경에는 鄭沅이 傳과 略史, 題詞 등을 모아서 『安重根』이라는 책을 간행하였다.<sup>51)</sup> 특히 鄭沅의 책은 안중근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52)</sup>

鄭沅은 안중근에 대해 ‘義俠’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그는 荊軻와 안중근을 동일시하면서,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이 결국 한국의 멸망을 촉진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의 적을 먼저 물리치지 못하고 외부의 적과 싸우려고 한 것은, 비록 안중근이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낫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鄭沅은 안중근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를 통해 당대의 중국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점에서 책을 간행했기에 이러한 평가가 필요했을 것이다.<sup>53)</sup>

鄭沅이 『安重根』 말미에 <韓人殺賣國奴之歷史>와 <日本明治時代暗殺表>를 수록한 점은 <略史>에서 ‘刺客’이라고 지칭한다는 점과 함께 안중근에 대한 그의 인식이 ‘義俠’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안중근의 ‘東洋平和論’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안중근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義俠’이나 ‘刺客’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박은식이 志士와 義俠을 넘어선 인물로 평가하고자 했던 시각과는 초점이 다른 것이라 하겠다.

두 책에 실린 중국인들의 詩文에서도 안중근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한국의 義俠’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과 鄭沅의 『安重根』에 모두 수록된 梁啓超의 7언 48운의 시 <秋風斷藤曲>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梁啓超는 안중근을 형가와 창해역사에 비겨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義俠’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sup>54)</sup>

이처럼 중국의 ‘文士’들이 안중근에 대한 평가를 다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으로, 중국인들은 안중근을 일본의 중국침략을 막아준 은인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졌다. 또한 교과서에까지 안중근을 다루는 등 안중근에 대한 지식이 일반화되고 있었다.<sup>55)</sup> 또 앞서도 말했듯이 안중근 이야기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 근대연극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특히 <安重根刺伊藤>은 중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공연될 정도로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고 한다.<sup>56)</sup> 그런데 이러한 희곡이나 소설 등의 경우에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중근의 생애 가운데 일부를 허구화하고 있다는

54) 중국인의 시문 가운데는 이토를 惡人の 이미지로만 형상화하지 않은 예도 보인다는 점 또 한 주목할 만하다. 金晉郁, 「安重根 義舉를 통한 中國 知識人の 朝鮮 認識 研究: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263~265면에서는 梁啓超 등의 시에 대해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거니와, 玉史의 <만고의사안중근전> 말미에 거론된 孫文의 시에서도 ‘중립적인 시선’이라 할 만한 부분을 읽어낼 수 있을 듯하다. 이는 지향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화론의 영향 하에 있던 당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공통적 사유방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당대 중국 및 한국에서의 사회화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성진, 『사회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선인, 2003 및 坂元ひろ子[사카모토 히로코], 양일모·조경란 역,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풍경, 2006 참조). 박은식 또한 사회화론적 시각으로 해석할 만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안중근 전> 24장에서 일본의 기자와 사진사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그것이다. 박은식은 안중근을 왜곡하고자 하는 일본의 기자·사진사들에 대해 그 또한 자기 나라를 위한 행동이므로 비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5) 안중근의 조카이며 김구의 며느리인 안미생 여사는 1946년의 대답에서 중국의 小學校 教科書에까지 안중근 선생의 일이 실려 있어서 중국인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安美生女史와 一問一答>, 『安重根先生公判記』, 231면 참조.) 또한 직접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안중근의 祠堂을 세웠다는 소문도 안미생 여사는 들은 바 있다고 하였다. 한편 1986년부터 중국 조선족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 가운데는 안중근 관계의 글이 수록된 것이 있다고 한다. 비록 상징성은 바뀌었지만 오늘날에도 안중근에 대해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金春善, 앞의 글, 129~131면 참조.

56)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의사』, 집문당, 1994, 196~197면; 문성재, 「안중근 열사를 제재로 한 중국연극-南大本 『亡國恨傳奇』을 중심으로-」, 한국중국희곡학회 편, 『韓國과 中國의 演劇과 演戲』, 신성출판사, 2004, 332면; 嚴安生[엔안성], 한영혜 역, 『神山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일조각, 2005, 230면. 특히 『새로 쓴 안중근의사』에는 1911년의 공연장면 사진도 실려 있다. 중국에서의 안중근 소재 연극의 공연 상황에 대해서는 金春善, 앞의 글, 124~125면 참조.

한 자세한 상황은 金春善,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124~125면; 이등연·양귀숙, 「중국 근대 시기 詩歌에 나타난 朝鮮 문제 인식」, 『中國人文科學』 29집, 중국인문학회, 2004, 329~332면; 金晉郁, 「安重根 義舉를 통한 中國 知識人の 朝鮮 認識 研究: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30집, 중국인문학회, 2005, 262~268면 참조.

51) 金春善,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125면에서는 정원의 『안중근』 간행연도는 1921년 혹은 그 이후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52) 한시준, 「중국인이 본 안중근-박은식과 鄭沅의 『安重根』을 중심으로」, 『忠北史學』 11·12합집, 충북대학교사학회, 2000, 499~504면; 金春善, 앞의 글, 125~128면.

53) 이에 대해서는 한시준, 앞의 글, 502면 참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에 靑少芹(공사오친:1879~1939)의 작품으로 밝혀진 <亡國恨傳奇>는, 1910년부터 1911년까지 연재되었지만 실제 공연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다.<sup>57)</sup> 協約-謀刺-結黨-生祭-旅滿-殲讐-鞠供-海蹈-迎襯-續榮-黨祭-併韓의 12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에서는 안중근의 생애를 비롯한 역사적 사실이 여러 부분 변형되고 있다. 안중근의 부인 김아려가 투신자살하고, 조선의 왕이 일본에 볼모로 끌려가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또 힘없고 불쌍한 조선왕의 이름은 李完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안중근과 함께 거사를 도모하는 동지들의 이름과 역할도 사실과는 달리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변형 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한 데서 발생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상당 부분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비극적이고 비장하게 만드는 데 이러한 변형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중국 연극의 경향이 비극적 결말을 선호했다는 점 또한 이런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58)</sup>

<亡國恨傳奇>는 안중근의 아내 김아려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김아려는 남편의 뜻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발설하지 않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본인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자결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앞서 살핀 안중근 관련 전기류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안중근의 경우 ‘義俠’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토를 쓰러뜨리고 안중근이 무대에서 퇴장할 때 부르는 노래에 형가와 고점리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자객의 의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중근과 아내 김아려에 대한 <亡國恨傳奇>의 묘사는, 따라서 義烈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안중근 소개 소설 가운데 한국인들에게도 읽혔던 작품으로는 <英雄淚>가 있다.<sup>59)</sup>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몇 곳에 현재도 소장되

어 있을 뿐 아니라 박은식이 당시의 금서목록에 포함시킨 것을 볼 때<sup>60)</sup> 이 작품이 당시 한국인들에게도 읽혀졌음은 짐작할 수 있다. ‘鷄林冷血生’이라는 필명만 남아 있어 정확한 작가는 알 수 없으며, 1911년 上海에서 간행되었다.<sup>61)</sup> 총 26회로 구성된 장편이다.

<英雄淚>는 안중근의 거사를 비롯하여 당시 한국을 둘러싼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의 역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주요인물 가운데 가공의 인물이 많을 뿐 아니라,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행적과는 전혀 다른 예가 많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경우에도 실제의 생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sup>62)</sup> 우선 소설에 나타난 안중근의 생애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安悅生과 張氏(雲在霄의 表妹) 사이의 晩得子로 서울에서 태어나다.
2. 일본의 화를 피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던 도중 일본 도적을 만나 부친 안열공이 죽다.

記>(1915)와 <安重根外傳>(1919)이 있다. <愛國鴛鴦記>는 중국인 郭敬一과 韓王 종친의 딸인 李琮枝라는 허구적 인물을 설정하여 이토 저격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안중근의 감화를 받은 광경일이 이토 저격에 나섰다가 계략에 빠져 실패하고 죽게 된다는 내용이다. <安重根外傳>은 안중근을 다룬 傳들을 참고로 하여 쓴 작품으로 보이는데, 사실 관계에 있어 부분적인 오류가 보이지만 허구화된 설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英雄淚>와 유사한 설정을 하고 있어 개작본으로 짐작되는 <繪圖朝鮮亡國演義>(1920, 20회본)도 있다.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柳昌辰·鄭榮豪·宋鎮韓, 「韓國 題材 중국 근대문학 작품 목록 및 해제」, 『中國人文科學』 26집, 중국인문학회, 2003 및 柳昌辰, 「<繪圖朝鮮亡國演義> 小考」, 『中國小說論叢』 제2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繪圖朝鮮亡國演義>는 번역본이 출판되었으며(楊塵因 著, 임홍빈 역, 『조선망국연의』, 알마, 2006), 유창진은 이 작품이 <英雄淚>의 속편·개작본·모방작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 60) 박은식의 『韓國痛史』 제3권 52장(『백암박은식전집』 1, 398면)에는 일본에 의해서 규정된 당시의 書籍收燬 목록, 즉 일종의 금서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英雄淚>는 박은식의 작품인 <몽매금태조> 등과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61) 간행경위와 작자문제, 서지적 특징에 대해서는 陳遼, 慷慨悲歌 英雄淚-讀英雄淚, 『중국소설연구회보』 23집, 중국소설연구회, 1995 및 황재문, 「서간도 망명기 박은식 저작의 성격과 서술 방식」 참조.
- 62) 柳昌辰, 「<英雄淚>의 인물 유형을 통한 시대 인식」, 『中國人文科學』 30집, 중국인문학회, 2005, 216~218면에서는 안중근을 ‘영웅 대망론적 인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유창진은 중국인들이 당대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웅의 출현을 모색하며 모델로 설정한 인물이 안중근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였으므로, 주로 작가의 의도와 관련한 분석을 하였지만 실제 사실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57) 문성제, 앞의 글. <亡國恨傳奇>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58) 문성제, 앞의 글, 355~356면.

59) 안중근을 제재로 한 1910년대 중국소설로는 <英雄淚> 이외에도 단편인 <愛國鴛鴦

3. 侯彌의 도움으로 구조되어 운재소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다.
4. 6세가 된 안중근은 운재소의 집에서 그림을 발견하고, 그림 내용인 워싱턴에 대한 일화를 듣고 글배우기를 청한다.
5. 후필이 운재소의 집에 글선생으로 와서 안중근의 스승이 된다.
6.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자 후필의 권고와 운재소의 재정 후원으로 미국으로 유학하게 된다.(17세)
7. 어머니로부터 부친의 죽음과 스승 후필은 은혜에 대해 듣고 후필을 義父의 예로 대하다.
8. 미국 워싱턴의 법정학당에서 5년간 공부하다.
9. 귀국한 안중근은 악공, 후필의 죽음과 구분량의 실종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
10. 안중근은 愛國會의 일원으로 이토를 죽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11. 이토의 하얼빈 행이 알려지자 망설임 없이 하얼빈으로 가서 이토를 죽인다.
12. 체포되어 당당하게 행동하고 효수되어서도 산 것처럼 보인다.
13. 구분량 등이 안중근의 시신을 훔쳐 와서 안장한다.

안중근이 晩得의 외아들로 태어나 3세 때 아버지를 잃고서 편모 슬하에서 성장한다고 설정했다. 또 외가의 친척이며 당대의 충신인 雲在霄가 그를 거두어 키우게 되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미국 유학생 출신인 侯彌가 그에게 학문을 가르친다고 했다. 두 사람이 안중근의 구원자(조력자)로 설정되는 셈인데, 이 두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다. 평범하지 않은 출생과 고난,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이 성장기에 설정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죽게 된 내력을 듣고서 자신의 원수를 알게 된 안중근은, 자신의 스승이 곧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임을 알고서 義父로 모시게 된다고 이 작품에서는 설정했다. 그렇지만 스승이며 은인인 侯彌 역시 같은 원수(일본, 이토)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의 구원자인 雲在霄의 설득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 돌아온 안중근은, 귀국하자마자 원수를 갚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고 했다. 또 망설임 없이 복수

에 성공하고, 그의 시신은 동지들의 손에 의해 안장된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은 능력을 키워 원수를 갚고 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英雄淚>에 나타난 ‘안중근’은 실제의 안중근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했다는 점 정도가 사실과 일치할 뿐인 것이다. 구원자와 동지의 존재, 성장과정과 학업 등은 모두 허구적 설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전대의 소설에서 영웅의 생애를 그리는 데 흔히 사용된 구조와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英雄淚>는 왜 안중근이라는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의 생애를 이처럼 현실과 다르게 서술하였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히 답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작품 자체의 창작 배경을 검토하는 데서 그에 대한 해답의 일부는 찾을 수 있을 듯하다.

<英雄淚>는 기본적으로 중국, 특히 東三省의 사람들에게 당대 정세의 위험성을 깨달아 각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씌어진 소설이다. 서문을 비롯한 작품 여러 곳에서 독자는 조선의 망국사를 통해서 일본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러시아의 폴란드 침략을 다룬 <國事悲>를 통해서 러시아의 위험성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중근을 비롯한 조선의 亡國史는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현실적인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교재가 된다면 충분할 것이다. 구체적인 서술의 사실성은 이 경우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안중근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안중근은 이토라는 원수를 쓰러뜨리는 인물이지만 하면 충분하다. 또 여타의 인물들은 한국의 실제 역사에 충실한 인물이기보다는 당대 중국의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작품의 서사구조나 주인공 안중근의 일생을 전대 소설의 구조나 영웅의 생애와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은, 독자를 집중시키고 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설정이 작품 속의 시대상을 단순화시켜 제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하

다. 親日黨과 事大黨, 한국[高麗]과 일본의 대립은 선악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당대의 중국 독자들로 하여금 위기를 인식하고 반일의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데 보다 유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안중근’을 비롯한 조선의 상황은 중국인 작가와 독자에게 있어 자신의 처지와 진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고 하겠으며, ‘안중근의 생애’가 사실과 달리 기술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sup>63)</sup>

그렇지만 <英雄淚>의 설정이 안중근의 이토 저격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私嫌의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박은식이 경계한 바의 ‘志士’나 ‘義俠’의 차원보다 더 아래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안중근 자신이 私嫌이나 誤解라고 인정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를 거듭 거절했던 것을 생각하면, 안중근 자신의 의사와는 반하는 형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2. 일본문학의 사례

앞에서 살폈던 洪焉의 <大東偉人安重根傳>에는 사건 발생 직후 각국의 반응이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반응도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대부분의 언론이 분노에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幸徳秋水[고토쿠 슈스이] 같은 인물은 예외적으로 안중근에 대해 ‘열사·사생취의·살신성인’ 등으로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안중근을 소재로 한 작품이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암시적이면서 간접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시에서는 안중근을 소재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발표된 바 있다. 石川啄木[이시카와 타구보쿠]의 작품 <ココアの一匙(코코아 한 숟갈)>이 그것이다.<sup>64)</sup> ‘테러리스트

63) 이와 함께 작품 여러 곳에서 이토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서술이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토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충신이었고, 교활한 계교와 비열한 계책을 씌어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물로도 평가되는 것이다.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李鴻章이나 袁世凱가 이토 같은 인물이었다면’ 식의 가정법을 그 속에서 읽을 수 있는바, 이 또한 <英雄淚>가 독자를 각성시켜 중국이 당대의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의 슬픈 마음’으로 서술된 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石川啄木은 안중근을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石川啄木이 보다 구체적으로 안중근을 거론한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今朝 東京의 各新聞은 거의 그 全紙面을 들어서 公의 遭難報를 滿載하였 니라. 따라서 이젠 드디어 아무런 疑心할 바도 없다. 어쩐 不幸이나. 公은 26日 午前 9時 哈爾賓驛에 到着, 車를 내려 出迎한 諸人과 歡을 나누는 사이에 突然 韓國革命黨 青年의 襲撃을 받아, 腹部에 두 發의 短銃丸을 맞고, 後半 時間 지나 車室의 한 구석에 잠들었니라.(10월 27일)

實로 해야 할 말 없는 것 같아라. 吾人의 痛悼은 깊도다. 하지만 伊藤公으로서 能히 그 죽을 자리를 얻었다 하리라. 最後의 一瞬에 이르기까지 國事에 몸을 바쳤느니, 故人 또한 그욕이 滿足하지 않으랴. 그리고 韓人의 心事 또한 憐愍해야 할지니.(11월 4일)<sup>65)</sup>

인용문은 石川啄木이 『岩手日報』에 게재한 <百回通信> 가운데 한 부분이다. 당시 충격에 휩싸인 일본의 상황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이 글에는, 짧지만 안중근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다. 韓人의 心事를 ‘연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伊藤博文이 나라를 위해 죽었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표한 뒤에 간략히 서술한 것이지만, 이러한 서술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타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사를 헤아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인용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범인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혁명당 청년’이라고 지목했다는 점이다. 뒤에 안중근은 의병참모중장이라는 군인 신분을 강조했지만, 일본의 시인은 ‘혁명당’이라는 지하조직을 거론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나 검찰에서 私嫌이나 誤解로 몰아가려 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안중근을 소재로 한 희곡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64) 오영진, 「石川啄木 文學에 나타난 韓國觀-安重根을 노래한 詩를 중심으로」, 『일본학』 13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4.

65) 위의 글, 91~92면.

으로 보인다. 1931년 三中堂에서 李泰浩의 작품이라고 표기되어 간행된 <哈爾濱驛頭의銃聲>은 한국인의 작품이 아니며 일본인의 작품이다. 일본 작가 谷讓次[다니 지요지: 1900~1935]가 1931년에 『中央公論』에 발표한 <安重根>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김윤식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sup>66)</sup>

<哈爾濱驛頭의銃聲>은 안중근의 저격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판 과정에 대한 기록들에서 지적되거나 밝혀지는 사실들이 작품 내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가공인물을 배치하고 있어, 실제의 안중근과는 거리가 있는 ‘안중근’을 형상화하고 있다.

柳麗玉이라는 안중근의 애인을 설정한 점이 우선 눈에 띄고, 안중근이 이토를 곧 저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동지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설정이 또한 두드러진다. 애인을 설정하고 ‘동지들’을 제시한 것은, ‘한국혁명당 청년’ 혹은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石川啄木の 시각과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즉 이런 장치는 ‘테러리스트’가 연상시키는 형상이 안중근에게 부여된 결과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반면 ‘이토의 저격’이라는 중대한 일을 당연히 ‘안중근’이라는 개인이 맡게 되리라는 소문과 기대가 왜 설정된 것인지는, ‘한국혁명당 청년’ 혹은 ‘테러리스트’라는 지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작품 속의 ‘안중근’은 왜 이토를 죽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지 부담스러워 한다. 또 안중근은 동지들이 ‘안중근은 이제 거사를 포기하고 변절했다’고 생각하도록 의도적으로 일본의 첩자와 접촉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안중근의 고뇌와 행동은, 앞서 살핀 한국이나 중국의 1910년대 문학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가운데 ‘안중근의 고뇌’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哈爾濱驛頭의銃聲>은 안중근의 행위를 비난한 작품은 분명 아

니지만, 그렇다고 안중근의 거사를 칭송하고자 한 작품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안중근과 이토, 즉 죽이는 자와 죽는 자의 동일성,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안중근의 갈등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작품의 주제의식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뇌하고 갈등하는 안중근’은 역사적 사실과의 일치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며, 작가의 사상과 관련된 차원의 설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중근의 거사 계획을 모든 이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안중근이 남들을 속이고자 거짓으로 변절한 듯이 행동하도록 한 설정에 대해서는, 작품의 주제의식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 경우 중국의 <英雄淚>가 독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안중근의 생애를 형상화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서사구조가 일본인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고전 가운데 하나인 <忠臣藏[주신쿠라미]>에서 ‘안중근’과 유사하게 주인공의 행동이 설정된 예를 발견할 수 있다.<sup>67)</sup> <忠臣藏>도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원래 赤穂아코의 浪인들이 주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복수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 작품은, 여러 가지 허구적인 설정으로 극적 흥미를 높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자체가 법률과 윤리의 적용에 있어 쉽지 않은 문제거리를 던져 주었지만, 문학작품인 <忠臣藏>에서는 그러한 법률·윤리의 문제보다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여타 등장인물을 속이는 행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안중근의 이토 저격 사건 또한 일반적으로 兇行이라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거리를 갖고 있었지만,<sup>68)</sup> <哈爾濱驛頭의銃聲>에서는 작품의 초점을 돌려서 그러한

67) <忠臣藏>의 배경과 연행 상황에 대해서는 加藤周一, 김태준 역, 『日本文學史序說』 2, 시사일본어사, 1996, 160~173면 참조.

68) 일본의 입장에서 안중근의 이토 저격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거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년 전에 미국에서 스티븐스 저격 사건의 판결이 있었고, 법리적으로도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刑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식의 변화가 근거가 있는 것이기도 했다. 또 당시 일본에서도 暗殺이 거둬 발생하였지만 이를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앞서 살핀 鄭沅의 <日本明治時代暗殺表>에서 당시 일본의 암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이토 역시 청년 시절 외국인을 살해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당대 일본에 있어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사건 만으로도 러시아 황태자 및 중국사신 李鴻章의 살해미수사건, 명성황후의 살해 사건 등이

66) 김윤식, 「김윤식교수의 문학산책-안중근의 흔적을 좇아서」, 『한겨레신문』 2005년 9월 23일자.



문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sup>69)</sup>

물론 이러한 가정이 <哈爾濱 驛頭의 銃聲>의 설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사례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경우는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우선 다르고, 행위자의 수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안중근의 행위가 작가와 독자, 즉 일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윤색되었으리라는 추정의 가능성은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또 이러한 윤색은 兇漢이나 惡漢으로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안중근의 생애를 사실과 달리 묘사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핀 중국의 회곡 및 소설에서와 유사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중근의 행위를 ‘복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하는데, 이는 안중근이 자서전에서 밝힌 거사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안중근의 형상화와 주체-타자의 관계

주체와 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개념 자체의 성립을 위해서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체와 타자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그 범위나 위상은 달라진다. 이 때문에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시대와 작가 및 독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1910년대의 사회를 움직인 정신을 규정한다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또 하나의 큰 문제이겠지만, 사회진화론과 민족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사회진화론과 민족주의는, 공동체로서의 주체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국제사회를 전제할 때 주체는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었

있었다.

69) 만약 이런 가정이 타당하다면 ‘안중근의 애인’을 설정한 데 대해서도 <忠臣藏>과의 관련성 하에서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47인 浪人の 우두머리와 그 부인의 관계 또한 <忠臣藏>을 구성하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중근과 같은 상징성이 큰 인물을 소재로 한 문학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문학작품의 문제로 논의를 옮긴다면, 작품의 소재가 되는 대상과 작가와 의 관계가 문젯거리가 될 것이다. 거칠게 말한다면 작가가 어떤 사람이며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같은 작품에서도 부분적으로 작가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작가와 대상의 동일시는 같은 공동체라는 의식 하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동체로서의 주체는 주체의 시선과 타자의 시선이 복합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다룬 자서전은, 단순화시킨다면 주체와 대상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씌어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사유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독자의 존재를 전제하는 이상 ‘솔직하게 쓴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글을 쓰는 주체가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타인들에 대한 묘사에서는 타자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쓴 자서전의 경우에는 이토로 대표되는 일본인들의 존재가 그러한 영역에 해당되는 문젯거리였을 것이다.

<안응칠역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안중근의 공판기록을 대비시켜 본다면, <안응칠역사>에는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있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재판 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시간적·공간적인 제약과 작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따른 고려의 필요성이라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일 터이다. 앞서 언급한바 의병활동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서술이 그러한 상황의 결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세히 서술될 법한 일본의 악행과 그에 대한 비판이 별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고려라고 보기는 어렵다면, 안중근의 ‘일본’에 대한 시각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토와 구별되는 ‘일본’이라는 타자는 안중근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미완성 상태로 남은 안중근의 글 <東洋平和論>은, 일본에 대한 안중근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기서 주목할 만하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지닌 의미는 현재 역사학계의 쟁점 가운데 하나이지만, 조금 거칠게 정리하자면 ‘동양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단합해야만 장래 서양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sup>70)</sup> 서론과 전감 부분만 집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旅順에 상설 한중일 3국 연합의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병설은행을 두어 3국 공동지폐를 발행한다는 정도의 것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sup>71)</sup> 따라서 동양평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東洋의 단합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일본 역시 그 틀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안중근에게 있어 일본이란 현실적으로는 적이지만, 미래에 있어서는 동반자여야 하며 같은 공동체에 포괄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sup>72)</sup>

<동양평화론>에 대한 이상의 해석 또한 가능하다면, ‘일본’이라는 타자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이해가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안중근의 경우 이토와 일본을 분리시킴으로써 그러한 이해를 행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황제는 동양평화를 추구하고 백성들 또한 그를 따르고자 하

70) 당시 일본에서 대륙침략론이나 아시아연대론과 동일한 맥락에서 ‘동양평화론’을 제기하였다는 점은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한다. 이는 전망이나 결말에 있어 상이한 사상들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진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가진 특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당대 동아시아사회에서의 ‘동양’이나 ‘평화’가 갖는 의미와 상징성의 공통적 기반 또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는 안중근을 연구한 대부분의 논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도 보인다.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11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71)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8.128면.

72) ‘일본’에 대한 태도는 안중근의 ‘서양’에 대한 태도와는 대조적임을, <안중근의사>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이 오히려 서양인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체험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설립을 반대한 민주교, 독단을 비판한 데 대해 폭력을 행사했던 홍신부는, 안중근에게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사제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님은, 해당 부분의 문맥을 살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포용해야 할 존재인 ‘일본’에 대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와는 대조된다.

는데, 이토라는 악한이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이를 나쁜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sup>73)</sup> 결국 이토를 제외시킬 때 ‘타자’로서의 일본은 ‘東洋’이라는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토 개인과 ‘일본 자체’에 대한 상이한 서술 태도에 주목해 볼 때 안중근은 자서전에서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자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서술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전망까지를 염두에 두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인이 쓴 안중근 소재 문학의 경우에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자서전의 경우와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작가는 생각했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안중근의 정치적인 입장, 생애와 이력에 대해 작가가 전적으로 공감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작가 나름의 방식으로 대상을 재해석하고 공동체로서의 주체의 범위를 확정했을 것이다.

이 경우 작가와 대상은 일차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조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족’의 범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 예컨대 가치관이나 독립운동의 원칙 같은 문제도 일치되어야만, 작가가 공동체로서의 주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가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안중근이라는 대상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안중근의 성격을 재해석하고 사건들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형상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택영은 天主教 관련 부분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천주교도로서의 안중근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중국과의 연대관계에 관심을 둔 인물로 안중근을 묘사함으로써 작가 자신과의 공통성을 부

73) 안중근이 이토의 죄상을 언급하면서 제시한 15개조항은 바로 이러한 인식 위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선험제 암살을 거론한 것은, 당시 그러한 소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기는 하지만, 이토에게 모든 악행의 책임을 돌리려 한 의도의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각시켰다. 개인의 삶을 왜곡한 것은 아니지만, 자서전에서와는 달라진 안중근의 형상이 이를 통해 나타난다. 반대의 경우 <근세역사>에서는 마리아가 안중근의 삶의 고비마다 등장하고 안중근은 ‘주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을 사형기일로 요구하였다고 서술했다. 서술의 방향은 물론 다르지만, 이 역시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택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도는 다르지만 장군으로 묘사한 홍언이나 이상적인 종교가로 묘사한 계봉우와 같이 여타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측면은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안중근 자체’를 존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박은식은 역사학자로 이름을 남겼으며 사료 자체에 근거한 정확한 안중근의 모습을 서술하고자 한 인물이다. 박은식은 안중근을 志士나 烈俠으로 보는 시선을 경계하고 ‘평화의 대표’라는 안중근의 발언을 존중하여 서술했다. 이 경우 ‘평화’가 박은식의 이상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의 악행에 대한 일화를 드러내 서술하거나 동시에 일본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안중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 용납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은, 박은식이 생각하는 ‘공동체로서의 주체’가 놓인 자리에 안중근을 대입시킨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은식의 경우에는 타자의 시선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안중근이라는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작가들과의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중국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중근의 전을 간행하면서도 ‘義俠’으로 대표되는 중국인들의 일반적 시각에 대해 논란하고 있다는 점은 그 두드러진 부분이다. 그런데 보다 세심하게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해석을 한 예가 있으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박은식이 안중근의 이토 저격장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이토는 기차에서 내려 러시아 대신과 악수를 하고 군대의 경례를 받은 후 각국 영사들이 있는 곳으로 서서히 걸어갔다. 안중근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지닌 채 러시아 군대의 뒤에 서서 살피고 있었다. 10보 거리에 다가오자 갑자기 들어가서 총을 들고 한 발을 쏘아 이토의 가슴을 명중시켰다. 그렇지만 화

포가 요란했기에 군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두 번째 쏘아서 늑골을 명중시켜서야 군경과 환영단들이 비로소 깨닫고 흩어지니, 안중근이 돌연 모습을 드러냈다. 이토가 손가락질하며 ‘馬鹿(바보)’라고 욕하였다. 세 번째 쏘아서 배를 명중시키니, 이토가 땅에 엎어졌다.<sup>74)</sup>

장면 묘사가 비교적 세밀하게 이루어진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번째 총탄을 맞은 이토가 자신을 저격한 안중근에게 욕을 했다는 대목이다. 사실 이러한 장면의 묘사는 본고에서 살펴본 작품 가운데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왜 박은식은 다소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장면을 여기에 서술하고 있는가?<sup>75)</sup>

박은식이 참고한 자료들의 목록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어렵겠지만, 일본 측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 해석에 대한 약간의 단서는 얻을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은 1958년에 일본에서 발간되어 널리 읽힌 伊藤博文 전기에서 이토의 사망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다.

그러는 동안 이토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조금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브랜드를 마셨다. 범인이 한국인으로 이미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리자 “바보 같은 놈”이라고 중얼거리며 잠시 신음하다 눈을 감았다.<sup>76)</sup>

여기서는 이토가 안중근을 바라보며 눈으로 확인하고서 욕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서 욕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유언과도 같은 중얼거림으로 처리되어 있다.<sup>77)</sup>

74) 「安重根傳」, 『안중근전기전집』, 238면. “伊藤下車, 與俄大臣握手, 受軍隊敬禮, 徐步向各國領事所. 重根服洋裝持拳鎗, 立俄軍之背而伺之. 相距直十步, 突入舉鎗一發, 中伊藤胸, 而花廠亂之, 各軍不覺. 再發中肋, 軍警及歡迎團始覺而樹走, 則重根突現, 伊藤指而罵之曰馬鹿(日本語辱罵聲). 三發中腹, 伊藤即仆地.”

75) 박은식의 글을 참고하여 씌어진 작품이 있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누구도 서술하지 않았다. 총을 맞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토가 욕을 하는 행동이 비현실적이 가고 판단했거나, 혹은 사건 전체에서 따로 서술할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76) 中村菊男[나카무라 기쿠오], 강창일 역, 『이등박문』, 중심, 2000, 254면.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 이토의 증얼거림으로 처리된 이 욕설은, 자신이 한국인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한국이 열강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죽은 이상 한국은 식민지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탄식으로 해석되곤 한다.

이토의 마지막 욕설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서술의 근거가 소문인 이상 박은식에게도 알려져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박은식은 소문에서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서술은 사실 차원에서 반론을 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탄식이 아니고 욕설이며, 따라서 깊은 의미를 담은 유언이 아니라 단순한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은식은 타자의 시선에 대한 의식 하에서 안중근을 형상화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안중근을 타자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서술이 가능할 것인가? 서술 대상인 안중근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해석과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중근이라는 존재가 갖는 무게감과 상징성은 그러한 서술의 결과에 대해서는 작가를 자유롭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안중근의 위인성이나 영웅성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쓰기 어려웠던 것이 또 한편의 사실이기 때문이다.<sup>78)</sup>

이 경우 적어도 1910년대에 있어서 안중근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쓴 작가들은, 안중근을 자신의 정치적 시선과 동일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의 서술을 완전한 타자의 시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안중근이 중국을 일본의 위협에서 구했다는 시각이나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는 당대 지식인의 형상으로 연상시킬 수 있었던 시각은, 안중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토대 위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로서의 주체’라는 영역 하에 이

들 작품의 작가를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확장된 주체’의 시각에는 한국인 작가들의 시각과 구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대상인 안중근의 생애에 관한 실제 사실들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중국인들의 작품들, 그리고 조금 뒤시기이지만 일본인의 작품에서 안중근의 생애가 실제와는 달리 서술된 것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또 그러한 변형이 작가 자신의 문화적 전통과 연관 맺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점도, 앞서 지적한 바이지만 여기서 함께 거론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英雄淚>에서 안중근이 전래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근접하는 특징을 갖도록 하거나, <亡國恨傳奇>에서 안중근의 처가 자살하는 결말을 설정한 것이 그러한 예가 된다. 또 <哈爾濱驛頭的銃聲>이 자국 고전에서 나타난 바 있는 행동방식을 안중근에게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鄭沅의 『安重根』에서 볼 수 있었던, 부분적이거나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객관화된 시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그러한 구별의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안중근의 영웅성을 승인하는 것과는 별도로, 안중근의 이토 저격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검토하고 이토라는 대상에 대해서도 재인식하고자 했던 태도는 이들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별도로 문젯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서술의 객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런 부분은 ‘타자의 시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 ‘공동체로서의 주체’가 가진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선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앞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지만, 안중근을 소재로 한 문학이 오늘날에도 창작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창작되는 이들 문학 작품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우리 역사의 뛰어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씌어지고 있다. 때문에 1910년대 한국인 작가의 작품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최대한 안중근의 생애를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창작되는 특징을 가진다. 대체역사를 제시하거나 안중근의 생애 가운데 특정 부분을 집중 조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품의 주체의식을 표출하면서도, 안중근의 생애를 ‘왜곡’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다.

77) 총을 맞고 열차 안으로 옮겨진 이토는, 약 1시간 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의식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토의 전기에는 이 부분의 서술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토의 사망을 둘러싼 당시의 소문이 다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다.

78) 이토에 대해서 혹은 李鴻章을 소재로 쓴 작품에서 안중근이 등장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의 논의는 안중근을 작품의 중심 소재로 다룬 예들에 한정하여 진행한 다.

이러한 상황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 듯하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은 상당한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작가를 ‘공동체로서의 주체’에 한정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안중근에 대한 ‘타자의 시선’을 갖거나 혹은 의식하는 등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을 수 있다. 그러한 논의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안중근을 소재로 한 향후의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 6. 결론

이상에서 1909년 사건이 일어난 이래 안중근에 대한 문학작품에서의 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우선 첫째는 형상화의 차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료상의 한계, 상황의 제약 등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한 가지 설명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계를 짓고자 한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 논의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는 안중근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요인에 대한 보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교과서나 오늘날의 역사 서술과 같은 보다 많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부분적으로는 역사학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그러한 결과를 수용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라는 문제에 주목할 경우, 오늘날 중국의 역사 인식 특히 안중근을 비롯하여 망명인사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사를 포괄하는 역사를 서술하려 할 경우, 안중근 등은 중국인의 일원으로 묘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택영이나 박은식 같은 인물들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있

## 참고문헌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안중근의사자료집』, 국학자료원, 1999.
- 백암박은식선생진집편찬위원회 편, 『白巖朴殷植全集』, 동방미디어, 2002.
- 림종상 각색,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자음과모음, 2006.
- 楊塵因 저, 임흥빈 역, 『조선망국연의』, 알마, 2006.
- 윤병석,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9.
- 李泰浩, 『哈爾濱驛頭的銃聲』, 삼중당, 1931.
- 中國吉林大學東北亞研究院·韓國鮮文大學中文系 協編, 『韓國藏中國稀見珍本小說』 第1輯, 中國: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7, 국사편찬위원회, 1978.
- 민병수 외, 『開化期の 憂國文學』, 신구문화사, 1974.
- 박성진,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선인, 2003.
- 신용하 편, 『안중근 유고집』, 역민사, 1995.
-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의사』, 집문당, 1994.
- 加藤周一[가토 슈이치], 김태준 역, 『日本文學史序說』, 시사일본어사, 1996.
- 嚴安生[연안성], 한영혜 역, 『神山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일조각, 2005.
- 佐木隆三[사키 류조], 양억관 역, 『曠野의 烈士 安重根』, 고려원, 1993.
- 中野泰雄[나카노 야스오], 양억관 역, 『동양평화의 사도 안중근』, 하소, 1995.
- 中村菊男[나카무라 기쿠오], 강창일 역, 『이등박문』, 중심, 2000.
- 坂元ひろ子[사카모토 히로코], 양일모·조경란 역,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풍경, 2006.
- 金晋郁, 「安重根 義學를 통한 中國 知識人의 朝鮮 認識 研究: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30집, 중국인문학회, 2005, 255~270면.
- 金春善,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109~136면.
- 김명석, 「SF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와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서사 비교」, 『문학과영상』 4집, 문학과영상학회, 2003, 71~102면.
- 柳昌辰·鄭榮豪·宋鎮韓, 「韓國 題材 중국 근대문학 작품 목록 및 해제」, 『中國人文科學』 26집, 중국인문학회, 2003, 405~439면.
- 柳昌辰, 「<英雄淚>의 인물 유형을 통한 시대 인식」, 『中國人文科學』 30집, 중국인문학회, 2005, 215~233면.
- \_\_\_\_\_, 「<繪圖朝鮮亡國演義> 小考」, 『中國小說論叢』 제2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5, 307~328면.
- 문성재, 「안중근 열사를 제재로 한 중국연극-南大本 『亡國恨傳奇』을 중심으로-」, 한국중국회과학회 편, 『韓國과 中國의 演劇과 演戲』, 신성출판사, 2004, 331~367면.
- 신광철, 「안중근을 보는 두 가지 시선: 남북한 영화가 재현해 낸 애국적 인물의 궤적」, 『인문콘텐츠』 1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226~240면.
- 신운용,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내의 인식과 반응」, 『한국근현대사연구』 3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7~49면.
- 오영진, 「石川啄木 文學에 나타난 韓國觀-安重根을 노래한 詩를 중심으로」, 『일본학』 13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4, 77~119면.
- 윤병석, 「安重根의사 傳記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8, 104~144면.
- 윤선자, 「안중근 의거에 대한 천주교회의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50~78면.
- 이등연·양귀숙, 「중국 근대 시기 詩歌에 나타난 朝鮮 문제 인식」, 『中國人文科學』 29집, 중국인문학회, 2004, 311~339면.
- 조광, 「安重根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1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180~222면.
- 陳遼, 「慷慨悲歌 英雄淚-讀英雄淚」, 『중국소설연구회보』 23집, 중국소설연구회, 1995, 10~11면.
- 한상권, 「안중근 의거에 대한 미주 한인의 인식: 『신한민보』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79~108면.
- 한시준, 「중국인이 본 안중근-박은식과 鄭沅의 <安重根>을 중심으로」, 『忠北史學』 11·12합집, 충북대학교 사학회, 2000, 493~505면.
-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11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155~195면.
- 황재문, 「서간도 망명기 박은식 저작의 성격과 서술 방식」, 『진단학보』 98호, 진단학회, 2004, 153~182면.
- \_\_\_\_\_, 「金澤榮 詩에 나타난 遺民意識」, 『한국한시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119~154면.

## A Study on Aspects of Ahn Jung-geun's Literary Expression — Focused on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s

Hwang, Jae-moon

In 1090 Ahn Jung-geun(安重根) had shot Ito Hirobumi(伊藤博文) in Harbin, China. Almost People in East Asian country were shocked by that shooting, and some of them were deeply moved at that time. Since the death of Ahn Jung-geun, fairly many literary works on him had been created by Koreans, Chinese and Japanese. In this paper I scrutinized those works with inten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s in literature.

First I closely studied the autobiography of Ahn Jung-geun, and found that the hostile criticism or anecdote to Japan was not expressed in that autobiography. But that about Ito Hirobumi was the exception. Next I examined the works by Koreans and Chinese in the 1910s. From that I foun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ose works. In works by Koreans, the coherence between the character and the real person was pursued in spite of some discrepancies.

On the other hand Chinese writers had a tendency to concentrate on describing the heroic and didactic aspect. In fact some works by Chinese like *A Hero's Tear*(英雄淚) had expressed completely different life story from that of real Ahn Jung-geun. But It is true that these works had an intention to enlighten the Chinese people by showing the heroic Korean's life story. And I think that it is true that some Chinese writers were successfully pointed out the problems about Ahn Jung-geun's shooting, those were not mentions by Koreans. I think that the sight of the others were the main cause to make it possible.

There were rare Japanese writers who expressed Ahn Jung-geun positively those times. Because From the position of Japanese people, Ahn Jung-geun was regarded as an enemy. But some writers expressed him as a heroic and anguished terrorist, and in those works the hostile attitude was not found. Like works by Chinese

writers, In those works the life of Ahn Jung-geun was different from the real.

From above considerations, I concluded that there are some elements to limit or expand the area of expression under the position related to the subject, the object, writers and the others. But those elements were not selected individually. The Nation, the community and the spirit of the times of writers had determined that elements. For example nationality of writers, social darwinism had played those role. But it is worth to mentioning that writing under the viewpoint of the others would be a useful method to express the person dynamically.

Key Words : Ahn Jung-geun( 安重根), Ito Hirobumi(伊藤博文), autobiography, the subject, the others.

접수일자 : 2007. 4. 10 심사기간 : 2007.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7. 5. 20
--